

鐘 小 銘 未 己

고 以下 「施主戶長 信善」外 八名이 보 인다. 現高 一尺九 寸八分 口徑一尺九 寸三分이다. 이 鐘 에 對하여서는 「東國 史學」第五輯에 圖版 과 더불어 紹介하였다.

(9) 錦山花林里出 土中鐘(無銘)  
國立博物館扶餘分 館藏

一 九五六年三月全 北 錦山郡 錦城面 花 林里에서 出土되었 다. 通式으로서 龍鈕 甬筒이 있고 上緣에 는 立狀蓮花紋帶가 있으며 廣幅의 上· 下帶에는 花紋이 彫 刻되었다. 乳廓四區 各九乳이며 그 間地 鐘腹에는 圓形蓮花 撞座와 菩薩坐像 各 二가 交代하였다. 鐘 腹이 過大하고 彫刻 은 纖細한데 年代는

中期以後로 推定되었다. 高四二cm、上徑一九·五cm、下徑三〇·二cm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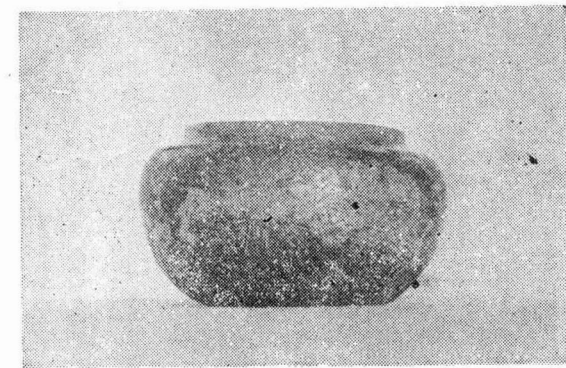
(10) 錦山面馬首里出土小鐘(無銘) 國立博物館扶餘分館藏

一 九五七年五月(9)의 出土地點과 十里相距인 錦城面馬首里에서 盧榮 一氏에 의하여 發見되었다. 크기는 (9)의 約半이며 樣式은 類似하나 彫 法은 粗略하다. 四乳廓 間地의 鐘腹에는 蓮花撞座와 天人坐像 各二가 交代로 配置되었다. 總高 九寸一分、下徑 五寸三分이다. 이 鐘에 對하 여서는 洪思俊氏의 報文이 圖版拓影과 같이 「한글일보」(一九五七年 六 月二十四日) 掲載되었다.

銀製 鍍金 舍利盒

秦 弘 燮

慶州 皇龍寺址에서 出土되었다고 傳하는 舍利盒을 最近에 市井에서 過眼할 機會가 있어 매우 貴重한 資料임 으로 紹介하여 둔다.



銀製 舍利盒